

## 칠엽수 잎마름병 (Leaf blotch)

칠엽수는 마로니에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나무이며, 마로니에는 칠엽수 집안의 나무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일본 원산인 칠엽수, 소아시아 원산이며 열매 곁에 가시가 있는 가시칠엽수는 우리나라의 가로수나 공원수로 많이 심겨져 있다. 이런 칠엽수류에 여름이면 잎에 갈색의 큰 반점이 생기며 지저분해지는 잎마름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 병을 소개한다. 칠엽수 얼룩무늬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한국식물병리학회의 공식적인 병명은 칠엽수 잎마름병이다.



김 경 희 박사/연구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 1. 피해 및 진단요령

이 병해는 세계적으로 칠엽수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하게 병든 잎은 마치 뜨거운 여름 햇볕에 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관이 크게 손상된다. 특히 어린 나무에 심하게 발생되어 조기 낙엽을 시키며, 생육에도 큰 피해를 준다.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잎가장자리가 말려 수분부족에 의한 생리적인 피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므로 병징과 표징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잎에 불규칙한 반점이 있는가? 갈색의 병반에 표징(바늘머리만한 검은 점)이 있는가?를 관찰하여 원인에 맞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 2. 피해수종

칠엽수, 가시칠엽수

### 3. 병징 및 표징

처음에는 새로 피어난 잎에 작고 희미한 반점들이 나타나나 며칠 안에 갈색~붉은 갈색으로 변한다. 반점은 커지면서 점점 불규칙한 모양의 얼룩무늬를 형성하며 병반의 가장자리는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병반 위에는 바늘머리만한 검은 돌기들이 다수 나타나는데 이것은 병원균의 분생포자각으로서 그 안에는 많은 분생포자가 들어있다. 병반들이 서로 융합해서 잎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 잎은 불에 그슬린 것처럼 바짝 말라비틀어지면서 일찍 떨어진다.

#### 4. 병원균 : *Guignardia aesculi* (Peck) V.B. Stewart

병원균의 분생포자각은 공모양이며, 분생포자는 넓은 타원형~계란형으로 짧은 부속사를 가진다.

#### 5. 방제법

- 물리적 방제 : 병든 낙엽은 모아서 소각하거나 땅속에 묻어서 월동전염원을 제거한다.
- 화학적 방제 : 피해발생 초기에 만코제브수화제, 클로로탈로닐수화제 등을 봄에 새잎이 피기 시작할 때 7~10일 간격으로 3~4회 살포한다. 🌿



피해전경(심하면 조기낙엽)



초기 피해



가시철엽수 피해



표징(병반에 형성된 작은 점)



피해 심



수분부족 피해